매일일보

전국 인천 경기

경기도 오는 일 경기평화콘서트 무관중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강세근 기자 | 승인

판문점 선언 주년 기념 경기평화콘서트 실시간 랜선 참여관객 모집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판문점 선언 주년을 기념하는 경기평화콘서트를 오는 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반도 평화와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이번 콘서트는 인기가수들과 성악가가 펼치는 공연과 피아노 선율 등이 어우러진 대국민 화합과 평화 공감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일 밝혔다

걸어온 길 가야할 길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올해 콘서트에는 양희은 이날치 알리 등의 인기 대중가수와 브레이브걸스 등 아이돌 뮤지컬 배우 남경주 소프라노 박소은 피아니스트 김철웅 임현정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 및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여기에 미얀마 출신 소녀가수 완이화와 노래패 우리나라의 무대가 더해져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경기평화콘서트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아트센터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특히 사전 모집된 랜선 관객 명이 온라인 화상 플랫폼인 줌 을 통해 참여 출연자들과 화상으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온택트 공연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랜선 관객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일부터 일까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 녹화된 공연은 경인 에서 오는 일 오후 시 분부터 분간 특집 방송되므로 아쉽게 온라인 생중계를 놓친 도민은 해당 방송으로 평화와 희망의 무대를 접할 수 있다 경기평화콘서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

원하고자 년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약 천 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년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취소 결정을 내렸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도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상을 함께 즐기고 화합하며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이라며 아울러 이번 공연은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지친 도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북돋우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세근 기자